



# 최근 보험 산업의 M&A 동향과 특징

김현경 연구원

■ 보험 M&A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급속도로 위축되었으나 보험회사들이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M&A 전략을 추구하면서 다시 활발해지고 있음.

● 2014년 상반기에는 Aviva의 Friends Life 인수를 포함한 295건, 하반기에는 359건의 M&A 거래가 발표되었음.

■ 업권별 특성을 살펴보면 생명보험회사는 수익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목적으로 손해보험회사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형화 전략으로 M&A를 추진하고 있음.

● 생명보험회사들은 규제 강화, 보험산업의 성장세 둔화, 저금리 시장 환경 등 경영환경 악화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부 매각을 결정

– Sun Life의 연금 사업부를 Guggenheim Partner가 매수(2012)하고 ReliaStar 생명보험회사(ING의 연금사업부)를 Global Atlantic Financial Group이 매수(2014)하는 등 생명보험회사 M&A 거래에서 사모투자회사, 헤지펀드 등 대체 투자자들의 참여가 증가하였음.

● 로이즈와 버뮤다의 중소형 재보험회사들은 글로벌 재보험회사와의 경쟁 심화, 재난위험손실 증가, 원수보험회사의 재보험 수요 변화 등으로 생존환경이 악화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대형화 생존전략으로 M&A를 추진하고 있음.

– RenaissanceRe의 Platinum Underwriter사 인수(2014), XL Group의 Catlin 인수(2014), AXIS capital사와 PartnerRe의 인수합병(2015) 등의 거래가 이루어졌음.

● 보험중개회사들은 대형화 전략 및 비용절감 효과를 위해 M&A를 활발하게 추진하여 관련 M&A거래 규모와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음.<sup>1)</sup>

–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대형화 추진과 중개 영업 관련 새로운 기술 도입 및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 M&A 동기 유인으로 작용

1) 2014년 약 300건 이상의 보험중개회사와 관련한 M&A 거래가 발표되었음.

■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과거 M&A시장을 주도하였던 북미 및 유럽시장의 M&A거래는 감소한 반면 남미 또는 아시아 지역이 새로운 M&A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아시아의 주요 보험회사들은 북미 보험회사 인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.

- 최근 인수된 생명보험회사의 M&A거래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및 남미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12%(2001~2007년)에서 41%(2008년~2014년)로 증가하였음.
  - 외국 투자자들은 경제성장, 보험침투도의 증가, 인구 증가를 기반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인도네시아, 태국, 말레이시아,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를 M&A 주요시장으로 함.
- 이전에는 아시아 지역의 M&A 거래 유형은 유럽과 북미 보험회사들이 아시아 보험회사를 인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의 보험회사가 미국의 보험회사를 인수함.
  - 중국 Fosun 투자회사는 2014년 미국 손해보험회사 Ironshore의 지분 20%를 4억 6,400만 달러에 매입한 이후 2015년 80%의 지분을 추가 매입함.
  - 2014년 일본의 Dai-ich 생명보험회사는 미국 시장 진출의 발판마련을 위해 Protective 생명보험회사를 57억 달러에 인수함.

■ 향후 M&A 거래는 규제변화, 다양한 투자자의 M&A 시장 참여, 신채널 수요, 보험회사들의 해외 진출 확대 등으로 인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
- Solvency II 등 규제강화 추세로 보험회사가 비용 효율성 제고와 자본 확충을 목표로 매각을 통한 사업규모 축소 또는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고려할 것으로 예상됨.
- 대체 투자회사의 보험회사 입찰 경쟁 참여 확대는 보험 M&A 시장에 투자자금을 유입시키며 M&A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
- 디지털화로 인한 신채널 수요가 높아지면서 신채널 확대를 위한 M&A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- 중국과 인도의 규제완화와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으로 아시아 M&A 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된다.

(Swiss RE, Willkie Farr & Gallagher LLP 등)